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이 오는 26일 '미스 프레지던트'를 상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스 프레지던트'에 등장하는 박정희(왼쪽)와 박근혜.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미스 프레지던트' '내 친구 정일우'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내 친구 정일우...정일우 신부의 삶 조명
미스 프레지던트...박정희세대 모습 담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묻는 영화,故 정일우 신부의 이야기 '내 친구 정일우'와 박정희 세대의 이야기 '미스 프레지던트'를 오는 26일 개봉·상영한다.



'내 친구 정일우'

리고 과산에서 함께 지낸 농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담았다.

영화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간다. '1988년의 나는 형용어인 머리, 불품없는 옷을 입은 한 신부를 만났다. 매일같이 커피·담배·술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은 또 무슨 장난을 칠까 궁리했던 개구쟁이, 노란 잠바를 입고 '노란사슴의 사나이'를 멋들어지게 불렀

던 '파란 눈의 신부'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었다. '가난뱅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믿음으로 모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었던故 정일우 신부는 모든 것을 초월해 사랑을 나누며 예수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진짜' 사람이었다'

또 한편의 영화 '미스 프레지던트'는 2016년 여름부터 박근혜 탄핵 직후까지 박정희와 육영수를 그리워하는 '박정희 세대'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영화는 박정희 세대의 일상을 따라가며 박근혜의 탄핵이란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혼란을 느끼는 추종자들의 모습을 전하며,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존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작품은 '트루맛쇼' MB의 추억'을 연출한 김재환 감독의 신작으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상영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해은 기자

고창출신 문인화가 최형주씨 개인전, 인사동에서

매화·난초, 점·선·면으로 그의 작품세계에 빠져보라

'벽하 최형주 문인화 세계' 개인전이 24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1층에서 130 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고창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서예의 꿈을 키워온 벽하 최형주 작가는 어려서부터 서화를 좋아했다. 청년시절에는 20세기 마지막 선비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서화가 강암 송송용 선생께 서화를 전수받으면서 화가의 길에 올랐다.



1984년에는 우석대학교 동양화학과로 입학하게 되었고, 86년도에는 전북도전에서 우수상을 받아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87년도에는 서울로 올라와 지금의 양천구에 화실을 얻은 후, 계정 민이식 선생을 만나 6년 동안 문인화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착실하게 배우면서 제1회 월간 서예주최 서예대전에서 문인화 부문에 최고상(우수상)을 받고, 예술의전당 청년작가 전 당선,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회호 대회 최고상(차상)을 수상하는 등 초창기 모든 대회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92년도에는 한국미술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서예대전 문인화부문에 우수상을 끝으로 작가로서 서·화단에 화려하게 등단했다. 2013년에는 소산 박대성 선생을 찾아가

글씨와 그림을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비우고 2년 6개월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경주에 다녔다. 그때 나이 57~60이었다. 예술에 대한 집념과 의지는 그에게 끊임없이 비움과 채움을 요구하였고, 지금도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30작품 이상을 하면서 스스로 허기진 영성을 채워나가고 있다. 난초·매화·국화·대나무의 오상고절은 더 이상 그 자체가 아니라 점·선·면으로 창작의 구심점이었다. 전시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선생이 추구하는 드넓은 문인화 세계를 천 견과 단견을 가지고 눈자가 다 말로서 다 펼칠 수 없는 것임에도 극구 마다하지 못하고 서술하여 하여 선생께 큰 능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며, 현인 목격들께서 해안으로 돌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내일 전북에 맞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제안

전북문화관광재단, 이노베이션 전략포럼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오는 25일 최명희 문화관에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이노베이션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새로운 제안'라는 주제로 도내 문화예술 분야의 현안인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문제를 파악하고 방안을 탐색한다.

구해경 팀장(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정책기획팀)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새로운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전국 17개시·도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형지원사업의 주요 사업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화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북 현실에 맞는 사업을 제안한다. 또한 그동안 추진한 지원사업 중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문수(전북도립미술관 학예실장), 김선태(예원예술대 교수), 문신(시인), 박영권(미크로



스합창단 지휘자), 성창호(서남대 초빙교수), 영광옥(한국무용협회 전북지회장), 이창선(이창선대금스타일 대표), 이태호(익산문화재단 사무국장), 정두영(한국연구협회 전북지회장), 탁영환(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소리꾼 장사익과 루마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콜라보'

내일 진안 문화의집 마이홀서 무대

'소리꾼 장사익'과 동부유럽의 진주 '루마니아 크라이오바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음악 선율이 오는 25일 오후 7시 진안 문화의집 마이홀에서 펼쳐진다.

2017 진안홍삼축제 성공을 기념하여 열리는 음악회는 세계적인 소리꾼 장사익과 국내 정상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김현지 등 특별 게스트 초청으로 더욱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티타 폴카, 페르시아 행진곡, 바이올린 협주로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에 이어 소리꾼 장사익의 '아버지', '필레꽃', '님은 먼곳에'까지 매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항로 군수는 "2017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을 기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깊어가는 가을밤 유럽의 정통 클래식과 감동의 노래로 화답하는 장사익의 하모니를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회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25일 초청공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 선착순으로 입장시할 계획이다. 협소한 공연장의 단점 때문에 입장하지 못하는 관객을 위해 진안읍사무소 앞 광장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게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해 공연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

루마니아의 남서부에 위치한 올테니아는 일찍이 로마제국에 편입되어 풍부한 금광과 은광, 보물 등 재원의 산지로써 번영을 누렸으며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세계적인 와인 산지로도 유명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예술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자 최종 선정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지난 19일 '예술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한 지원자 최종면접을 진행한 결과, 그룹지원 3팀(이은희, 김송화, 임세진)과 개인지원 1명(우혜정)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술로 창업 인큐베이팅'은 예술인 문화귀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들의 원주로의 문화귀향 및 정착을 견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이는 창업 준비 중인 청년예술가들에게 실패를 줄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한다. 그룹지원에 선정된 이은희씨는 소품과 공예를 결합한 아

이템, 김송화씨는 복화술로 하는 인형극, 임세진씨는 영상 실내디자인과 3D 프린팅을 접목한 소재, 그리고 개인지원에 선정된 우혜정씨는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퓨전요리로 전문가 멘토를 통해 창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최종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뿐 아니라 참여과정 결과를 토대로 예술창업 씨앗지원금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팀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창업아이템 중 음식+공예, 음식+미술 등 음식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아이템의 경우, 성과에 따라 '2018년 팝업 레스토랑' 리모델링 예정지인 복합문화지구 누에내 폐 관사 공간 참여 작가 우선 선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지임대 수탁사업 안내문

"농지를 Fb 농지은행에 맡기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1.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 ▶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 ▶ 그러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농지 소재지 시·군에 실제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적 용 세 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 제외시 (기본세율)	6~35% (2년이상 보유시)	적 용 (최대 30%)
비사업용 토지 해당시 (중과세)	60%	해당 없음
- 2. 농지 관리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 공사와 임대위탁 계약체결 이후에는 임대차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지므로 농지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3.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중여 포함)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임대 등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 ▶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에는 동 위탁기간 동안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므로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이란?

이농·상속·노동력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분이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문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하여 드립니다.

KF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농지은행부
☎ 063) 560-1510~11